

# 일본계 미국인의 이름 짓기\*

- “요꼬 아베”는 “제니퍼 아베”와 무엇이 다른가? -

김재준\*\*

jjkim@kookmin.ac.kr

## Contents

1. 서론
2. 문헌연구와 연구모형
3. 연구의 대상과 방법
4. 기술 통계: 예비 분석
5. 분석: 미국식 이름 사용 패턴과 경제사회변수의 관계
6. 결론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ffect Japanese Americans' decision to adopt Anglicized names. Empirical analysis reveals three main findings. Economic variables like the average household income and housing prices have no impact on Anglicization rates. However, sociocultural factors affect Anglicization rates more than economic factors. Ethnicity is the most significant sociocultural factor, and even though gender has no influence on its own, the interaction of gender and ethnicity has a significant impact. The significance of ethnicity implies that Asian-Americans behave differently than other American ethnicities. The fact that Japanese Americans, males in particular, are found to use American names more than others shows that ethnicity and gender have a special effect. The insignificance of economic variables also suggests future studies, to further the thought on the language use of im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Key Words** : Japanese Americans, name Anglicization, Korean Americans, gender, immigration, Asian American Studies

\* 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많은 도움을 준 Stanford 대학교 Granovetter 교수에게 감사를 드린다. 논문의 데이터 정리와 원고의 교정에 있어 국민대학교 김바우 군의 도움이 컸음도 같이 밝힌다.

\*\* 국민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 1. 서론

이민자들이 새로운 국가에서 적응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언어와 문화적 관습의 차이이다. 문화적 관습과 언어의 교차점으로서의 이름은 그 이민자와 소통하기 위해 부르고 기억해야 할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자신 그 자체를 지칭하는 상징적인 특수한 언어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2세라 하더라도 집에서 민족 언어와 영어를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름 역시 미국식 이름과 민족식 이름을 쓰는 경우로 양분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센서스 서베이(2000)에는 가정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쓰는지 묻는 항목이 있는데, 대개의 유럽 이민자의 경우 가정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쓰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아시아 이민자의 경우 가정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쓰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었다. 일본계 미국인의 이름 사용 패턴을 한국계 미국인과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은 미국 내 아시아계 이민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창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아시아계 미국인들, 특히 일본인 이세(Nissei)들이 미국식 이름 또는 일본식 이름<sup>1)</sup>을 쓰게 하는 결정 요인은 무엇인가? 미국의 이민자 사회, 특히 아시아계 이민자의 이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비록 드물지만 대체로 미국식 또는 민족 고유의 이름 사용의 의미를 자의식적 정체성의 확립으로 해석하여 왔다. 이는 보다 넓은 차원에서 관심을 더 가져온 이민자의 언어 사용이라는 주제가 주로 세대 갈등이나 교육 문제와 연관지어 연구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1) 미국식 이름과 일본식 이름의 사례는 일반적으로 미국사회에서의 인식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유럽계 미국인과 결혼한 일본 여자는 성이 유럽성이지만 이름은 일본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었다.

WILLIAM	HIDAKA	American name	Male
ROBERT	ABE	American name	Male
MARY	KAWAGUCHI	American name	Female
MICHELLE	IGUCHI	American name	Female
HIROYASU	ITO	Asian name	Male
KENJI	ARITA	Asian name	Male
TOSHI	OKADA	Asian name	Female
HIROKO	FREDERICK	Asian name	Female
MIYAKO	TAKAHASHI	Asian name	Female

이와 달리 경제학에서는 이민자의 유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으로 연구해온 경향이 있었고, 비록 이들 연구가 아시아계 이민자나 그들의 이름 사용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그 의미를 확장해 볼 때 경제적 변수가 이름 짓기에 영향을 주는지를 연결시켜 보는 것은 흥미로운 논의의 확장이 된다. 실제 아시아계 이민자는 연평균 소득이 미국 내 민족 중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문화적, 역사적 측면에만 분석이 집중되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일본계 미국인의 이름 사용 패턴을 결정짓는 요인이 민족<sup>2)</sup>과 성별 같은 사회문화적 변수<sup>3)</sup>인지 가계 소득과 주택 가격과 같은 경제적 변수<sup>4)</sup>인지를 한국계 미국인과 비교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는 ‘이름 사용 패턴’이라는 이민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상징적 행위를 결정짓는 요인이 어떤 차원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의 정도는 차원 간 또는 차원 내 구체적 변수들 간에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를 통해 미국의 아시아계 미국인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던져줄 것으로 기대된다.

## 2. 문헌연구와 연구모형

미국에서의 이민자 사회, 특히 아시아계 이민자 사회에 대한 연구는 경제학, 사회학, 교육학, 인류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 학문에서 이루어져 왔다. 경제학에서는 노동경제학과 경제발전론에서 특히 미국의 소수 인종이나 비숙련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연구서로써 “이민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Immigration)”은 이민자의 유입이 임금,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였다.(Borjas, 1994) Borjas(1987)는 미국의 소수 인종의 고용에 이민이 주는 효과를 분석한 바 있고, Altonji and

2) 이 논문에서 “민족”이란 용어는 ethnicity 개념과 대응된다. 민족성이란 말이 특정 민족 고유의 변하지 않는 특성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어 여기서는 “민족”이란 용어로 표현하였다.

3) 사회문화적 변수는 민족, 성별을 포함하여 정체성, 정치적 성향 등 모든 비경제적 변수를 포함한다.

4) 경제적 변수는 조사 대상자의 경제적 활동과 관련된 모든 변수를 의미하며 소득, 소비, 노동 시간, 주택 가격, 저축 등을 포괄한 개념이다.

Card(1991)는 새로운 이민자들이 미국 시장의 비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거시적 관점에서 이민자가 미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지, 미시적 관점에서 이민자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연구 또는 이민자의 언어 사용과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경제학에서 주목을 받지 못해 왔다.

미국의 이민자 사회에 대한 연구는 사회학, 교육학 등의 사회과학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한국 이민 가족에서 일어나는 언어소통, 문화적인 세대갈등을 연구한 사회학적 연구로는 Bae(1996), Yoon(2000)이 대표적이며, Yim(2006)은 이민자들의 의식구조와 언어생활 실태를 고찰한 바 있으며 Li(1998)는 로스앤젤레스의 중국인에 대하여 관찰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Choi(1996)는 한국인 자영업자들에 대해 분석하고 있고, Min(1999)은 유교식 교육이 이민자 가족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을 보였으며, Yim(2000)은 한국 이민자들의 세대 간 갈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일본과 일본 경제에 대한 연구는 미국 학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본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일본인들의 해외진출과 일본인 이세들의 삶을 다룬 본격적인 학술서는 Befu(2003)을 들 수 있고 각 지역별 일본인들의 디아스포라적 체험을 다룬 논문들로는 남미의 Yano(2006), 런던의 Mathews & Sakai(2001)를 들 수 있다. 국내 일본학 연구는 주로 일본 어문학 위주의 연구가 많으며 일본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연구는 자주 볼 수 있으나 일본인 자체에 대한 연구는 역시 많지가 않다. 이주지에서의 일본어신문 발행과 국민적 아이덴티티 유지를 중심으로 한 해외이주 일본인들의 디아스포라적 특성에 대한 연구로 허석(2006), 국가와 가족 사이에서 갈등하는 일본인 이세의 고민과 갈등을 담은 Chang & Chiung(2000)을 특별히 언급하고 싶다.

이처럼 사회학과 교육학, 지역학 등에서 미국 이민자들의 의식, 문화, 갈등을 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연구한 시도들은 비교적 풍부하게 있어왔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대체로 언어 사용의 의미를 가정에서 모국어어를 사용하느냐 영어를 사용하느냐의 문제나 언어에 대한 태도 등을 세대 갈등이나 정체성과 관련하여 다루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언의 사용이 사회경제적 변수와 관련을

맺고 있는 부분은 간과되어온 경향이 있다. 게다가 아시아계 미국인의 비교연구 보다는 특정 민족에 대한 심층 연구가 중심이어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언어 사용에 대한 민족별 고려나 경제적 변수와의 비교 분석은 드문 편이다.

사회학에서의 연구는 소위 미국식 이름(Anglicization of the first name)을 정체성을 만드는 과정으로 해석한다. 정체성(identity)에 대한 연구는 이민자의 교육문제와 이민 일세와 이민 이세 사이의 갈등을 이해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시작 되었다. Blau and Duncan(1967)은 “기본적인 지위 획득 모델”<sup>5)</sup>에서 사회적 배경과 교육 성취가 직업을 구하고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을 처음으로 이론으로 제시하였다. 이 논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한 어린이의 교육적 성취는 그 어린이가 속한 가족의 사회적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첫 번째 직장의 지위 위계(status hierarchy)는 교육적 성취와 가족의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받고, 나중에 구하게 되는 직업의 지위는 첫 번째 직업의 위계, 교육성취, 가족 배경에 의해 궁극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 모델은 다양한 소스의 영향력들을 명시적으로 등장시켜 어떻게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는가를 분석한 것인데, 추가적인 변수를 도입하여 이 모델을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Kerckhoff,1976 Kerckhoff,1993) 기본 모델을 확장하여 Sewell and Hauser(1980)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어린이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위스컨신 모델(Wisconsin model)을 만든 바 있다. 보다 현실적인 다양한 변수들, 예를 들어 능력, 야망, 중요한 타인으로부터의 격려(ability, ambition, encouragements from the significant others<sup>6)</sup>)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적 지위는 개인의 동기 부여가 된 노력(motivated efforts)을 통해 성취된다고 말한다. 이 모델은 중요한 이론적 공헌이지만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특히 미국에서는 여성과 소수민족에게는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었다. 주류 백인 남자에게는 적절하지만 여성과 흑인에게는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McClendon 1974; Porter 1974; Treiman and Terrell 1975).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이 이론이 적용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Sue and Okazaki(1990)는 위스컨신 모델을 써서 아시아인들은 미국에서 교육적 성취와 연관이 없는 분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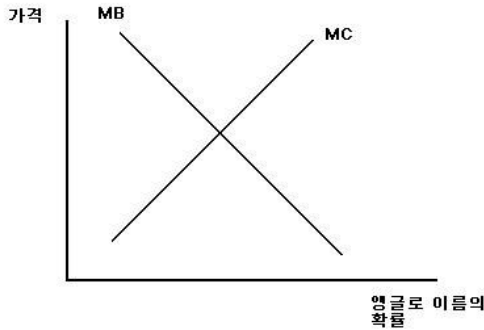
5) Basic Status Attainment Model

6) 부모, 선생님, 친구(parents, teachers and peers)

서의 사회적 지위 상승에 있어서 장벽을 느끼고 경험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런 동기가 아시아인들의 과도한 교육열을 설명한다는 것이었다. 일본계 미국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문화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별을 덜 받기 위해서 교육적 성취를 위해 노력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름의 선택이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연구 모형을 만들어 보았다.(그림 1) 세 가지 요인, 즉 민족, 경제적 배경, 커뮤니티가 아이의 이름을 짓는 부모에게 영향을 주며 동시에 학교와 교회가 중요한 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한 어린이가 미국식 이름을 갖는 것이 나중에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성취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아시아계 부모가 생각한다면 더 많은 비율로 아들과 딸에게 미국식 이름을 지어 줄 것이다. 그 결과 학교에서의 더 높은 성취, 더 나은 직업, 더 좋은 지역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아이의 성별과 부모의 이민경험이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된다. 미야코(Miyako) 또는 제니퍼(Jennifer) 중 어느 쪽이 일본 여자 아이의 이름으로 더 좋을 지 부모가 이민 일세대인지 이민 이세대인지에 따라 여러 가지로 생각을 다르게 할 수가 있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위스컨신 모형을 미시경제학적으로 구성해 보았다. 이름이 가지는 효용 함수와 비용 함수로부터 미국식 이름의 한계 편익과 한계비용을 도출할 수 있다. 한계편익은 우하향하고 한계비용은 우상향하는 일반적인 형태를 가정한다. 미국식 이름의 한계편익에 고려될 수 있는 요인은 쉽게 부를 수 있고 기억될 수 있는 것, 이에 따라 학교와 직장에서 더 나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미국식 이름의 한계 비용은 무엇일까? 이민자 사회에서 너무 미국화 되었다는 비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결국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미국식 이름을 지을 확률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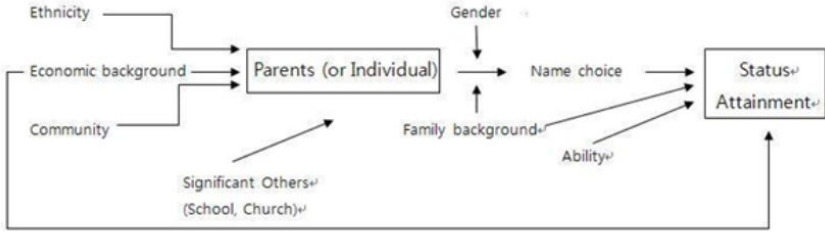


<그림1> 이름 짓기의 비용편익 분석

이 연구는 지금까지의 미국의 이민자 사회의 언어 사용과 관련된 연구와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구별된다. 첫째,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라는 차원이 아닌 ‘이름’이라는 상징적 언어 사용 패턴에 주목한다. 이는 엄밀히 일상 언어 사용과는 다른 차원으로 자기 자신의 ‘호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 어떻게 불러줄 것인가라는 이민자의 상황에서는 매우 미묘하고 상징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 이는 만남을 갖기 전에는 물론 만남을 갖는 순간부터 그 사람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 이름이므로 사용 언어 못지않게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이해하는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름 사용 패턴’의 결정 요인을 사회문화적 변수와 경제적 변수로 나누어 어느 쪽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 탐색한다.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는 역사적, 의식적, 문화적 영향의 결과물임은 물론 동시에 경제적 영향을 그동안 설명에서 간과해온 바 그 영향 가능성을 설정하고 실증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가령 이민자가 주류 사회에 진출하거나 고소득의 전문직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착민 못지 않은 세련된 언어 사용이나 친근감 형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름 사용 패턴은 사회문화적인 차원과 경제적 차원을 동시에 포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일본계 미국인이 이름을 사용하는 패턴”을 크게 사회문화적 변수인 민족과 성별 및 경제적 변수인 가계 소득과 주택 가격으로 대별하여 과연 어떤 차원이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구체적 변수가 더욱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이는

미국에서 이중 언어 사용 비율이 유난히 높은 아시아계 미국인의 이름 사용 패턴을 통해 그들의 특성을 이해는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림 2> 지위획득 모델에서 이름 짓기<sup>7)</sup>

### 3. 연구의 대상과 방법

#### 3.1. 조사 지역 및 조사 대상자의 선정

아시아계 미국인의 영어식 또는 민족식 이름(ethnic name) 사용 패턴을 사회문화적 차원의 변수와 경제적 차원의 변수를 비교분석하며 탐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연구 방법은 미국 전 지역에서 조사 지역 및 조사 대상자를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추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선 막대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사회문화적 또는 경제적 변수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조사 지역을 아시아계 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주로 선택하였다. 특히 일본계 미국인의 비율이 높은 캘리포니아 주의 산타클라라 카운티(Santa Clara County)에 주목하였고 그 안에서 두 도시<sup>8)</sup>인 로스 알토스(Los Altos)와 쿠페르티노(Cupertino)에 한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캘리포니아 주를 선택한 이유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가 거주하는 인종

7) 위스컨신 모델을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적용하되 이름 짓기를 명시적 변수로 도입하였다.  
 8) 연구 대상 도시의 선정에서 스탠포드 대학교 인류학과의 Harumi Befu 교수와의 토론과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다. 쿠페르티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변의 베이지역에서 가장 아시아 인구가 많은 도시이고 로스 알토스는 가장 소득이 높은 지역의 하나이기 좋은 비교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두 도시는 일본계 거주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구성이 다양한 주인데다, 특히 아시아계 이민자가 전체 주 인구의 12.3%로 미국의 다른 주에 비해 그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미국 전체 단일 인종으로는 아시아계가 3.6%에 불과하며 혼인까지 포함해도 4.2%에 불과하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의 이민자 사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을 연구하기에는 가장 좋은 연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집중하는 이유는 아시아계 비중이 52개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중에서 가장 높은 25.6%를 차지함으로써 풍부한 연구 대상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 참고).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특히 로스앤젤레스, 오렌지카운티와 더불어 일본계 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LA 폭동 이후 한국계 미국인도 많이 살아 한국인 이민자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산타클라라 카운티 전체를 연구하기에도 인력과 비용의 문제가 존재하기에 그 중에서 부유한 도시이며 아시아계 비중이 상대적으로 15.4%로 낮은 로스 알토스 (Los Altos)와 아시아계 비중이 44.4%로 가장 높은 쿠퍼티노 (Cupertino)를 선정하여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표 2 참고). 일차적으로 전화 번호부에 기록되어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을 이름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에 한하여 인구분포를 조사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름과 성별, 가계 소득, 주택 가격의 종합 데이터는 InfoUSA 중 Reference USA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Reference USA는 미국 소비자 및 기업에 대한 정보를 파는 데이터베이스 회사로써 미국 정부와 주요 연구중심 대학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하고 있다. 일본계 미국인과 한국계 미국인 모두 미국식 이름과 민족식 이름으로 양분하여 분류하였다. 주의할 점은 미국 전화번호부 (<http://www.yellowpages.com>)에 기재된 목록은 가계 대표자(head of a household)라고 볼 수 있다. 여성의 숫자가 실제 보다 작게 잡힌 것은 이러한 점이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집에 전화가 2대 이상 있을 때 가장과 부인, 자녀의 이름으로 각각 전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아시아계 미국인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거의 전수 조사에 가까운 포괄적인 샘플 수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미국 전화번호부를 통한 접근은 개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고려된 방법이고 따라서 연구의 한계로 남지만, 미국 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관광객이나 일시 거주자가 아니라 아시아계 미국인을 뜻한다는 점을 간접 추론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는 점을 역시 지적하고자 한다.

<표 1> 캘리포니아주 각 카운티별 아시아계 비율 (2000, US Census)

카운티	아시아계 비중(%)	카운티	아시아계 비중(%)	카운티	아시아계 비중(%)
Alameda	20.4	Marin	4.5	San Luis Obispo	2.7
Alpine	0.3	Mariposa	0.7	San Mateo	20
Amador	1	Mendocino	1.2	Santa Barbara	4.1
Butte	3.3	Merced	6.8	Santa Clara	25.6
Calaveras	0.9	Modoc	0.6	Santa Cruz	3.4
Colusa	1.2	Mono	1.1	Shasta	1.9
Contra Costa	11	Monterey	6	Sierra	0.2
Del Norte	2.3	Napa	3	Siskiyou	1.2
El Dorado	2.1	Nevada	0.8	Solano	12.7
Fresno	8.1	Orange	13.6	Sonoma	3.1
Glenn	3.4	Placer	2.9	Stanislaus	4.2
Humboldt	1.7	Plumas	0.5	Sutter	11.3
Imperial	2	Riverside	3.7	Tehama	0.8
Inyo	0.9	Sacramento	11	Trinity	0.5
Kern	3.4	San Benito	2.4	Tulare	3.3
Kings	3.1	San Bernardino	4.7	Tuolumne	0.7
Lake	0.8				
Lassen	0.7	San Diego	8.9	Ventura	5.3
Los Angeles	11.9	San Francisco	30.8	Yolo	9.9
Madera	1.3	San Joaquin	11.4	Yuba	7.5

<표 2> 쿠퍼티노와 로스알토스의 인종 구성 (2000, US Census)

지역	총 인구	백인	흑인	아메리카 인디언	아시아	태평양	기타	혼혈	히스 패닉	백인 (히스패닉 이 아닌)
Cupertino	50,546	50.1	0.7	0.2	44.4	0.1	1.3	3.1	4	47.8
Los Altos	27,693	80.3	0.5	0.2	15.4	0.2	0.7	2.8	3	78.2

### 3.2. 분석 방법

3.1의 절차와에 따라 선정된 조사 지역과 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회문화적 변

수(민족, 성별)와 경제적 변수(소득, 주택가격) 자료는 집적되어 통계 패키지인 STATA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미국식 이름 사용 여부에 대한 t검정을 포함한 다양한 주요 변수들 간의 교차표를 기술통계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료 분석은 미국식 이름 사용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도시 내 세부 거주 지역을 통제 변수로 하여 사회문화적 차원의 변수(민족만, 성별만, 민족과 성별, 민족과 성별과 민족\*성별)와 경제적 차원의 변수(소득 또는 주택가격 중 어느 하나)를 동시에 로짓 모델에 포함시켜 분석을 시도하였다. 경제적 변수 중 소득과 주택가격을 동시에 모델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두 변수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 4. 기술 통계: 예비 분석

먼저 조사 대상자들의 민족 분포가 도시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교차표를 만들고 도시를 변수로 한 t검정을 실시해 본 결과 1%에서 유의미한 패턴이 나타남이 발견되었다(표 3 참고). 즉 한국계 미국인은 쿠페르티노에 일본계 미국인은 로스 알토스에 더 많이 거주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는 부유층 거주 지역인 로스 알토스에 이민의 역사가 오래된 일본계 미국인이 상대적으로 다수 거주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도시는 독립변수가 아니라 통제변수이다. 왜냐하면 수많은 미국의 소도시들 간에 그것도 아시아계 미국인의 이름 사용 패턴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도시라 하여도 인구가 적지 않고 그 도시 안의 구역마다 다양한 변인들이 개입되어 차이를 빚을 수 있기에 여기서는 도시를 구역으로 나눈 더 세밀한 거주구역을 통제변수로 삼아 분석을 시도하게 된다(표 4 참고). 실제로 거주 지역마다 민족만 하더라도 한국계 미국인과 일본계 미국인의 거주 비율이 차이가 남을 볼 수 있다.

<표 3> 도시에 따른 민족 분포 패턴 (명/%) † : p<0.10, \*: p<0.05, \*\*: p<0.01, \*\*\*: p<0.001

City \ Ethnicity	Japanese	Korean	Total
Cupertino	294 56.11	250 62.97	544 59.07
Los Altos	230 43.89	147 37.03	377 40.93
Total	524 100	397 100	921 100

t = -3.5863\*\*

<표 4> 도시내 거주 지역에 따른 민족 분포 패턴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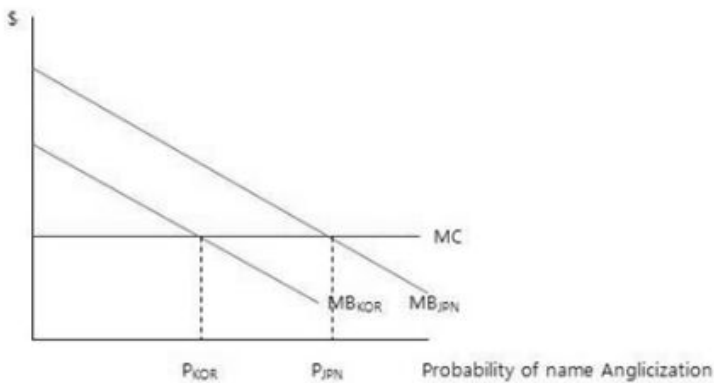
city \ ethnicity	Japanese			Korean			Total
	Japanese	Korean	Total	city \ ethnicity	Japanese	Korean	
507701	21 4.01	14 3.53	35 3.8	510001	40 7.63	27 6.8	67 7.27
507702	52 9.92	46 11.59	98 10.64	510002	21 4.01	11 2.77	32 3.47
507703	46 8.78	26 6.55	72 7.82	510100	19 3.63	11 2.77	30 3.26
507805	11 2.1	11 2.77	22 2.39	510200	29 5.53	15 3.78	44 4.78
507806	15 2.86	19 4.79	34 3.69	510300	21 4.01	12 3.02	33 3.58
507807	11 2.1	15 3.78	26 2.82	510400	16 3.05	8 2.02	24 2.61
507808	31 5.92	31 7.81	62 6.73	510500	19 3.63	15 3.78	34 3.69
508001	46 8.78	28 7.05	74 8.03	511701	19 3.63	12 3.02	31 3.37
508002	18 3.44	40 10.08	58 6.3	511702	11 2.1	12 3.02	23 2.5
508101	40 7.63	19 4.79	59 6.41	511703	33 6.3	23 5.79	56 6.08
508304	2 0.38	1 0.25	3 0.33				
509901	3 0.57	1 0.25	4 0.43	Total	524 100	397 100	921 100

이제 조사 도시 내의 구역에 따른 통계는 본격적인 로짓 분석에 포함될 것이고, 기술 통계를 제시하고 예비 조사를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t검정을 포함한 교차분석을 탐색적 수준에서 시도해보았다. 먼저 조사 대상자의 민족 구성에 따라 미국식 이름을 사용하는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교차표로 만들고 t검정을 해보았다. 그 결과 민족이 일본계인 경우 미국식 이름을 쓰는 경우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 차원에서 민족 구성이 아시아계 이민자의 이름 사용 패턴에 유의미한 변수일 것임을 시사한다. 즉 문화사회변수는 뚜렷한 영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표 5> 민족에 따른 미국식 이름 사용 패턴 (명/%)

American Name	Ethnicity		Total
	Japanese	Korean	
no	193	221	414
	36.83	55.67	44.95
yes	331	176	507
	63.17	44.33	55.05
Total	524	397	921
	100	100	100

t = 5.7871\*\*



<그림 3> 미국식 이름의 비용-편익 분석 (한국계 미국인 vs 일본계 미국인)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미국식 이름 사용 패턴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포함한 교차표를 구성해 보았다 (표 6). 그 결과 민족과 달리 성별은 그 자체로만 독립해서 보면 미국식 이름 사용 여부와 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문화 변수 중 성별은 아시아계 이민자의 이름 사용 패턴에 있어서 독립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6> 성별에 따른 미국식 이름 사용 패턴 (명/%)

American Name \ Gender	Male	Female	Total
	No	310 43.97	104 48.15
Yes	395 56.03	112 51.85	507 55.05
Total	216 100	705 100	100

t = -1.0791

앞서 민족에 따라 미국식 이름 사용 패턴이 달라졌기에 민족 구성별로 자료를 나누어 각각의 민족에 대하여 성별이 미국식 이름 사용 여부와 관련되는지를 교차하여 표를 그리고 t검정을 수행함으로써 살펴보았다(표 7, 표 8). 이에 따르면 한국계 미국인은 성별에 따른 특이한 이름 사용 패턴이 드러나지 않지만 일본계 미국인은 성별에 따라서 유의수준 1%에서 매우 강한 패턴이 발견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로짓 분석에서 민족과 성별을 어느 하나만 넣어서는 안 되고 모두를 독립변수로 넣음은 물론 양자의 곱까지 변수로 넣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표 7> 한국계 미국인의 성별에 따른 미국식 이름 사용 패턴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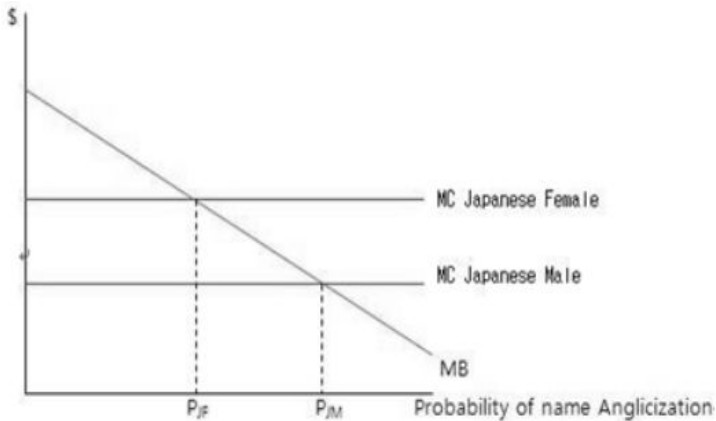
American Name \ Gender	Female	Male	Total
	No	40 53.33	181 56.21
Yes	35 46.67	141 43.79	176 44.33
Total	75	322	397

	100	100	100
	$t = 0.45$		

<표 8> 일본계 미국인의 성별에 따른 미국식 이름 사용 패턴 (명/%)

American Name	Gender		Total
	Female	Male	
No	64	129	193
	45.39	33.68	36.83
Yes	77	254	331
	54.61	66.32	63.17
Total	141	383	524
	100	100	100

$t = 2.47^{**}$



<그림 4> 미국식 이름의 비용-편익 분석 (일본계 남성 vs 여성)

다음으로 조사 대상자에 대한 가구 평균 소득을 구간으로 나누어 빈도 및 구간별 비중과 누적빈도를 표로 정리하였다(표 9). 이에 따르면 가구 소득이 적은 사람들(연 5만 달러 미만)은 2%로 되지 않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구 평균 소득에 따라 미국식 이름 사용 빈도가 달라지는지를 t검정을 통해 테스트해 본 결과 아무런 패턴도 나타나지 않았다(표 10). 이는 적어도 소득이라는 경제적 변수는 이름 사용 패턴과 관련이 없을 것임을 시사한다.

&lt;표 9&gt; 조사 대상자 가계의 소득 분포

가구 평균소득 (\$/year)	빈도 (명)	비중 (%)	누적빈도 (%)
15000	5	0.54	0.54
25000	3	0.33	0.87
35000	4	0.43	1.3
45000	5	0.54	1.85
55000	10	1.09	2.93
65000	11	1.19	4.13
75000	15	1.63	5.75
85000	15	1.63	7.38
95000	15	1.63	9.01
113000	76	8.25	17.26
138000	83	9.01	26.28
163000	72	7.82	34.09
188000	46	4.99	39.09
225000	171	18.57	57.65
275000	245	26.6	84.26
350000	104	11.29	95.55
450000	29	3.15	98.7
700000	12	1.3	100

&lt;표 10&gt; 미국식 이름/민족식 이름 사용에 따른 가구 평균 소득

이름	관측치	가구 평균소득 (\$/year)
민족식 이름	414	224280.2
미국식 이름	507	230530.6
전체	921	227721

$$t = -0.8861$$

조사 대상자의 주택 가격을 구간으로 나누어 빈도 및 구간별 비중과 누적빈도를 표로 정리하였다(표 11). 이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50만 달러 이하의 집은 불과 3.3%에 불과하고 100만 달러 이상의 주택이 전체의 24%에 달함으로써 주택 가격이 높음을 알 수 있다. 8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 사이에 21%의 주택이 집중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택 가격에 따라 미국식 이름 사용 빈도가 달라지는지를 t검정을 통해 테스트해 본 결과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패턴이 존재함이 발견되었다(표 12)<sup>9)</sup>. 이는 적어도 주택 가격이라는 경제적 변수가 이름 사용 패턴과 관련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로짓 분석에서는 가계 평균소득과 주택 가격 각각에 대한 다른 통제 및 사회문화변수와의 다양한 결합을 통한 모델들을 검정하며 두 경제 변수 차이에 효과가 다른지를 검토한다.

<표 11> 조사 대상자의 주택 가격 분포

주택 가격 (평균)	빈도 (명)	비중 (%)	누적 빈도 (%)
375000	2	0.22	0.22
425000	2	0.22	0.43
475000	26	2.83	3.26
550000	73	7.93	11.2
650000	105	11.41	22.61
750000	171	18.59	41.2
850000	195	21.2	62.39
950000	126	13.7	76.09
1500000	220	23.91	100
Total	920	100	100

<표 12> 미국식 이름/민족식 이름 사용에 따른 주택 가격

주택 가격		
이름	관측치	평균 가격 (dollar/채)
전통이름	414	918055.6
미국이름	506	960424.9
전체	920	941358.7

t = -1.9080\*\*

9) 아시아계 미국인의 주택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인지 예비 분석 과정에서 탐색 중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도시나 도시 내 거주 지역을 통제변수로 하였을 때 어떤 경우에도 소득, 민족, 성별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 중 소득은 당연하며 일본계 미국인이 더 높은 주택 가격에 사는 것은 이민 오기 전 국부의 차이가 간접적으로 반영된 것이라 하더라도, 여성이 가계 대표자일 경우 더 높은 가격의 주택에 산다는 것은 흥미롭다 하겠다. 이 논문은 아시아계 미국인의 이름 사용 패턴을 결정짓는 요인을 밝히는 게 주 목적이어서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추후 시도될 것이며 다만 그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부록으로 첨부해둔다.

## 5. 분석: 미국식 이름 사용 패턴과 경제사회변수의 관계

일본계 미국인들이 미국식 이름을 사용하는 결정요인은 사회문화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 중 어느 쪽이 더 결정적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4의 기술 통계 결과를 참고하여 조사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변수들의 조합에 근거한 총 8가지 모델에 대한 로짓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경제변수인 가계 평균소득과 주택 가격은 높은 상관관계( $\text{corr} = 0.5337$ )를 보여 다중공선성이 우려되는 바 이 둘로 크게 나누고, 각각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도시 내 거주 구역을 통제 변수로 넣었고 독립변수로는 (1)민족, (2)성별, (3)민족, 성별, (4)민족, 성별, 민족 \*성별의 네 가지를 각각 고려하여 총 8개의 모델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 표 13, 표 14이다. 로짓 모델 (1)-(4)와 (5)-(8)을 보면 점차 pseudo R-squared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모델 (4)와 모델 (8)을 채택해 분석을 하도록 하겠다.

<표 13>: 로짓 분석 (1): 경제변수를 가계 소득으로 잡을 경우

† :  $p < 0.10$ , \* :  $p < 0.05$ , \*\* :  $p < 0.01$ , \*\*\* :  $p < 0.001$

종속 변수 : name_american = 1 (미국식 이름 사용), name_american = 0 (민족식 이름 사용)				
변수 모델	Logit (1)	Logit (2)	Logit (3)	Logit (4)
census_tr_507702	-.1503561 (.4013313)	-.1572227 (.395096)	-.1263096 (.4027972)	-.1153654 (.4036849)
census_tr_507703	.4869708 (.4249133)	.5214949 (.4183445)	.4921619 (.4256624)	.5476711 (.4283061)
census_tr_507805	1.297904* (.6199808)	1.198025* (.6124794)	1.337174* (.620232)	1.415637* (.6223993)
census_tr_507806	-.1639812 (.4926351)	-.2817299 (.4843418)	-.1390769 (.4931786)	-.0818715 (.4953129)
census_tr_507807	-.7475867 (.5515286)	-.8630744 (.5435958)	-.7316651 (.5520452)	-.6732829 (.5545722)
census_tr_507808	-.3084662 (.4324496)	-.3731099 (.4255692)	-.2912668 (.4335603)	-.2611846 (.4349179)
census_tr_508001	.2883232 (.4198604)	.2928681 (.4139445)	.3259467 (.4216691)	.3531919 (.4227862)
census_tr_508002	-.3036814 (.4443236)	-.5535416 (.4352086)	-.2922374 (.4455408)	-.2731476 (.4465304)

census_tr_508101	-.1333538 (.4342777)	-.0610072 (.4284816)	-.0895146 (.4361084)	-.0485758 (.4377038)
census_tr_508304	.6178614 (1.288205)	.5989022 (1.271005)	.5755227 (1.289874)	.590956 (1.297181)
census_tr_509901	.9433736 (1.218286)	1.070782 (1.204122)	.9736404 (1.217733)	1.042211 (1.223423)
census_tr_510001	.7243149 <sup>†</sup> (.4365567)	.7642131 <sup>†</sup> (.4305704)	.7648751 <sup>†</sup> (.4384932)	.7924931 <sup>†</sup> (.4394799)
census_tr_510002	.0096531 (.4981246)	.0783539 (.4904311)	.0171579 (.4991965)	.0473355 (.5012235)
census_tr_510100	.0064788 (.5088665)	.1230026 (.5015386)	.0513487 (.5107345)	.0911874 (.512276)
census_tr_510200	.1437639 (.4636687)	.2555373 (.4572715)	.1811792 (.4654756)	.2122746 (.4668058)
census_tr_510300	.6084185 (.5087114)	.6397105 (.5014015)	.6098483 (.510227)	.6201341 (.5115608)
census_tr_510400	1.023007 <sup>†</sup> (.5886527)	1.084215 <sup>†</sup> (.5817239)	1.085663 <sup>†</sup> (.5927359)	1.065277 <sup>†</sup> (.5914874)
census_tr_510500	.5379262 (.5051783)	.5710263 (.4973408)	.5496323 (.5068385)	.5542369 (.5078987)
census_tr_511701	.4877565 (.5167814)	.5847401 (.5095161)	.5264471 (.5184661)	.563666 (.520015)
census_tr_511702	.4576049 (.5549519)	.4533611 (.5485775)	.538816 (.5591189)	.5324813 (.5583428)
census_tr_511703	.1707532 (.4464941)	.3058889 (.4418121)	.2431149 (.4496428)	.2934557 (.4512814)
house income (\$/year)	7.28e-07 (7.34e-07)	-3.07e-07 (7.08e-07)	5.60e-07 (7.42e-07)	5.17e-07 (7.43e-07)
Japanese (1=Japanese, 0=Korean)	.7521675*** (.1451649)		.7683183*** (.1457855)	.9008063*** (.1644696)
genderdummy (1=female, 0=male)		-.2156513 (.1643607)	-.2745128 <sup>†</sup> (.1671162)	.098548 (.266877)
Japan_gender (=Japanese*gender)				-.6005405 <sup>†</sup> (.3381508)
Constant	-.5483597 (.3960842)	.1532033 (.3726439)	-.4834923 (.3989152)	-.5719516 (.4032071)
Observations	921	921	921	921
pseudo R-squared	0.0570	0.0368	0.0591	0.0616
LR chi2	72.19***	46.65**	74.90***	78.03***

&lt;표 14&gt;: 로짓 분석 (2): 경제변수를 주택 가격으로 잡을 경우

† : p&lt;0.10, \* : p&lt;0.05, \*\* : p&lt;0.01, \*\*\* : p&lt;0.001

모델 변수	Logit (5)	Logit (6)	Logit (7)	Logit (8)
census_tr_507702	-.1599578 (.401872)	-.1701579 (.3954573)	-.1399357 (.4036814)	-.1274223 (.4044199)
census_tr_507703	.4872565 (.4251261)	.513785 (.4183165)	.4888709 (.4262079)	.5445369 (.4287684)
census_tr_507805	1.32463 (.6217936)	1.212222* (.6139902)	1.376861* (.6224993)	1.450985* (.6243443)
census_tr_507806	-.1626502 (.4930159)	-.2719895 (.4843899)	-.1285574 (.494033)	-.0728595 (.4959434)
census_tr_507807	-.7396124 (.5522395)	-.8558506 (.5438551)	-.716281 (.5529197)	-.6595057 (.5552265)
census_tr_507808	-.3457637 (.4345383)	-.4049358 (.427678)	-.3210085 (.4360799)	-.2949361 (.4372578)
census_tr_508001	.2999174 (.4208067)	.3082145 (.4150542)	.3496844 (.4233148)	.3740053 (.4242025)
census_tr_508002	-.3071342 (.4439552)	-.5311331 (.4351741)	-.278642 (.4458085)	-.2622483 (.4466172)
census_tr_508101	-.1001414 (.4369764)	-.0461395 (.4313947)	-.04471 (.4394856)	-.0086451 (.4408199)
census_tr_508304	.6842363 (1.292102)	.6204654 (1.273208)	.6475199 (1.294007)	.6558839 (1.301415)
census_tr_509901	.9324615 (1.219748)	1.060941 (1.204616)	.9608239 (1.21972)	1.030663 (1.225328)
census_tr_510001	.6863413 (.4406344)	.7395993† (.4342559)	.7188324 (.4425729)	.7508824† (.443628)
census_tr_510002	-.0108635 (.4994808)	.0644506 (.4914929)	-.0100609 (.5007312)	.0220869 (.5027577)
census_tr_510100	-.0268791 (.5131348)	.0881467 (.5052207)	.0039874 (.5150403)	.0485969 (.5165524)
census_tr_510200	.1122878 (.4673198)	.2282722 (.4602232)	.1389905 (.469054)	.1738487 (.4704759)
census_tr_510300	.5910572 (.5104727)	.6257232 (.5024945)	.584914 (.5122553)	.5974171 (.5135418)
census_tr_510400	.9781166† (.5903413)	1.074734† (.5832363)	1.043946† (.5949734)	1.026724† (.5935722)
census_tr_510500	.5093607 (.5088025)	.5297076 (.5008851)	.5016111 (.5108235)	.5110364 (.5119764)

census_tr_511701	.4342004 (.5258936)	.5394454 (.5177774)	.4528665 (.5274315)	.4970909 (.5291652)
census_tr_511702	.3973683 (.5606427)	.4207688 (.5539436)	.4717293 (.5645695)	.4719175 (.5638492)
census_tr_511703	.1608156 (.448394)	.2564788 (.4422136)	.2148091 (.4507015)	.2684089 (.4524349)
home_value (\$/house)	2.55e-07 (2.57e-07)	4.27e-08 (2.50e-07)	2.73e-07 (2.59e-07)	2.47e-07 (2.59e-07)
Japanese (1=Japanese, 0=Korean)	.7483188*** (.1430506)		.7757891*** (.1442798)	.9076778*** (.1630558)
genderdummy (1=female, 0=male)		-.2018012 (.1622743)	-.295933† (.1657925)	.0786432 (.2673411)
Japan_gender (=Japanese*gender)				-.5996387† (.3388293)
Constant	-.6112122 (.4258741)	.0492134 (.4014405)	-.6013598 (.4275259)	-.6764948 (.4303121)
Observations	920	920	920	920
pseudo R-squared	0.0578	0.0371	0.0604	0.0628
LR chi2	73.23***	47.01**	76.41***	79.53***

그리고 모델 (4)와 모델 (8)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나 유의미의 정도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 둘을 종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계 미국인의 이름 사용 패턴을 결정짓는 데는 사회문화적 차원이 결정적이며 경제적 차원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델 (4)와 모델 (8)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확인된 변수는 민족과 민족\*성별의 상호작용 항으로서 이들은 모두 대표적인 사회문화적 개인 속성 변수라 할 수 있다. 민족의 부호가 양이고 민족\*성별의 부호가 음인 것으로 보아 일본계 미국인일수록 미국식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하며 일본계 여성 미국인일수록 미국식 이름을 더 적게 사용하는 패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이 발견된 것이다. 반면 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같은 경제적 차원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패턴이 발견되지 않으므로써 경제적 차원은 이름 사용 패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는 추후 아시아계 미국인의 이름 사용 패턴이나 이를 확장하여 언어 사용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경제적 차원보다는 사회문화적 차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사회문화적 차원의 영향력이 가장 뚜렷하고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민족 변수였다. 우선 사회문화적 차원의 여러 가지 변수들 중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민족과 민족\*성별이며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성별이었다. 이 중 가장 유의미하게 나타난 독립변수는 민족이다. 즉 일본계 미국인인 경우 한국계 미국인에 비해 미국식 이름을 사용하는 패턴이 나타남이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이 발견되었다. 이는 아시아계 미국인이라고 통칭하기에는 민족별 상이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가령 일본계 미국인의 미국식 이름 사용 정도가 높은 것은 그만큼 일본계 미국인의 미국 이민 역사가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 길고 미국 사회에 동화되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미국 센서스 조사의 인종 항목에 ‘Asian’이라고 통칭될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아시아계 미국인을 묶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연구는 이름 사용 패턴이라는 상징적 행위에서 볼 때 아시아 내 민족별 상이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아시아계 미국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연구 (Asian Studies)라는 통칭 보다는 일본학 (Japan Studies), 중국학 (China Studies), 한국학 (Korea Studies)의 개별 및 비교 연구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사회문화적 차원의 하나인 성별은 그 자체로는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민족과 결부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이 발견되었다. 이는 페미니즘 연구에서 같은 ‘여성’이라 해도 그 안에 인종이나 계급 등 다양한 계층적 변수에 따라 ‘다른’ 여성임을 의미하며 이름 짓기 패턴도 같은 여성이라 해도 민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으므로 성별은 다른 변수와의 관련성 속에 분석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즉 일본 여성의 경우 미국식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민족식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한국 여성의 경우 미국식 이름이나 민족식 이름을 택하는 패턴이 남성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점은 일본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문화적, 역사적 요인에 대한 추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가령 여성에 대하여 민족적인 차원을 요구하는 정도는 한국보다 일본이 더 강하다든지 일본 여성이 새로운 문화에 동화되기 보다는 고유의 민족 문화나 관습을 지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가설도 설정해볼 수 있다.

넷째, 경제적 차원의 변수로서의 소득과 주택 가격은 기술 통계에서와 달리 별다른 차이 없이 아시아계 미국인의 이름 사용 패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

로 드러났다. 기술 통계 과정에서의 예비 분석에 따르면 개별 변수의 패턴만을 분석할 때는 소득은 이름 사용 패턴과 무관하고 역 인과관계로서 미국식 이름을 사용할수록 주택 가격이 높은 패턴이 발견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사회문화적 변수와 통제 변수를 추가한 최종 로짓 분석에서는 두 변수 모두 이름 사용 패턴에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으며 모델 (1)-(4)는 각각 모델 (5)-(8)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임으로써 두 변수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경제적 차원을 드러내는 유사한 지표임을 알 수 있다. 사실 가계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가격의 주택에 사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 가능한 대목이며 양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음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이는 아시아계 이민자의 경제적 차원에 대한 구체적 변수를 설정할 때 가계평균소득과 주택 가격 외에 다른 변수를 찾는 것이 경제적 차원을 다양하게 포착할 때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 6. 결론

이 연구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계 미국인의 이름 사용 패턴을 한국계 미국인과 비교하여 그 결정 요인이 사회문화적 차원에 있는지 경제적 차원에 있는지, 그리고 양자의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양 차원 및 그것을 구성하는 구체적 변수 수준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미국의 아시아 이민자 사회에 대한 지역 평균 인구, 지역 평균 소득이 아닌 개인 자료를 집적하고 조사 대상자의 도시 내 거주 지역을 세밀하게 변수화 하고 이를 통제변수로 삼아 연구를 진행했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이민역사의 장단, 현실적인 차별, 민족정체성, 현실적 이질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조사라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데이터 한계 내에서 분석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이름 사용 패턴에는 사회문화적 변수가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며 경제적 변수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

였다. 이는 이름이 자아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모국어 사용영역이므로 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문제를 넘어서 강한 자의식과 그에 따른 정체성을 투사하는 영역으로서의 특성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경제적 차원의 변수를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폭 넓은 분석틀과 검증을 시도하였다. 민족 변수가 가장 분명한 영향을 끼침을 확인하였고, 성별은 그 자체로는 영향력이 없지만 일본 여성이 특이하게 일본식 이름을 고집함을 발견하였다. 이는 성별이 그 자체로서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에 따라 상이한 성별 효과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연구 과제는 미국 내 아시아 계 사람들이 미국식 이름을 지은 이후에 이름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한 서베이를 통한 시계열적인 고려이다.

이 논문의 한계이자 추후 연구에의 보완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첫째, 아시아계 미국인의 이름 사용 패턴 연구의 결정 요인으로서 민족은 앞으로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미국의 아시아계 인종 구성을 참고하여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 아시아계 이민자는 민족별로 상이한 특성을 지닐 것이 시사되고 있으므로 이런 미국 내 아시아계 미국인의 민족별 비교연구도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둘째, 시간과 비용의 한계로 비교적 제한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비단 쿠페르티노와 로스 알토스뿐 만이 아닌 산타클라라 카운티 전체, 나아가서는 캘리포니아 지역 전체에 대한 분석을 가계 대표자뿐만 아니라 가계 구성원까지 포함하는 수준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허석(2006) 「해외이주 일본인들의 디아스포라적 특성에 대한 연구 -이주지에서의 일본 이민자 발행과 국민적 아이덴티티 유지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제31집, 한국일본어문학회, pp. 1~19
- Altonji, J. G. and Card, D. (2002). The Effects of Immigration on the Labor Market Outcomes of Less Skilled Natives. *International Library of Critical Writings in Economics*, 15(4), pp. 184~217.
- Bae, Y. (1999). Conflict caused by cultural difference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 Collected Papers for Workshop Presentation on Conflict between Generations of Korean immigrant family, pp. 6~23.
- Befu, Harumi and S. Guichard-Auguis(2003), *Globalizing Japan: Ethnography of the Japanese Presence in America, Asia and Europe*, Routledge
- Bertram and Mullainathan (2004) Are Emily and Greg More Employable Than Lakisha and Jamal? A Field Experiment on Labor Market Discrimin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4, no. 4 : pp. 991~1013
- Blau, Peter M., and Otis Dudley Duncan. (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Wiley.
- Borjas, G. (2001). Issues in the Economics of Immigration. *Ethnic and Racial Studies*, 24(4), pp. 685~686.
- Chang, Joan & Chiung-huei(2000), "Conflicts between Nation and Family : A Study of the Diaspora in Monica Sone's Nisei Daughter", *美國學論集* 32. pp. 379~399
- Choi, B. M. (1996). Korean owned Small Businesses in the United States.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19, pp. 139~173.
- Imhoff, G. (1990). The Position of U.S. English on Bilingual Education.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08, pp. 48~61.
- Kerckhoff, Alan C. (1976). The status attainment process: Socialization or allocation? *Social Forces* 55: pp. 368~381.
- Kerckhoff. (1993). *Diverging Pathways: Social Structure and Career Deflec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 W. (1998), Los Angeles's Chinese ethnoburb: From ethnic service center to global economy outpost. *Urban Geography*, 19(6), pp. 502~517.
- Mathews, G. & Sakai(2001), "Japanese Bankers in the City of London: Language, Culture and Identity in the Japanese Diaspora", *Journal of Japanese studies*, VOL 27. pp.164~167
- McClendon, McKee J. (1976). The occupational status attainment process of males and fema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1: pp. 52~64.
- Min, B-K. (1999). Confucian education method of the Korean immigrant parents and the conflict between generations of the Korea immigrant family. *Collected Papers for Workshop Presentation on Conflict between Generations of Korean immigrant family*. pp. 24~41.
- Ovando, C. J. (1990). *Politics and Pedagogy: The case of Bilingual Education*.

- Harvard Educational Review, 60, pp. 341~356.
- Porter, James N. (1974). Race, socialization and mobility in educational and early occupational attain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1: pp. 414~431.
- Portes, A. and Sensenbrenner, J. (1993). Embeddedness and Immigration: Notes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Economic A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6), pp. 1320 - 1350.
- Sewell, William H., and Robert M. Hauser. (1980). The Wisconsin longitudinal study of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in aspirations and achievements. *Research in Sociology of Education and Socialization* 1: pp. 59~99.
- Sue and Okazaki(1990), "Asian-American Educational Achievements: A Phenomenon in Search of an Explanation" *American Psychologist*, August 1990, Vol. 45, No. 8, pp. 913 - 920
- Treiman, Donald J., and Kermit Terrell. (1975). Sex and the process of status attainment: A comparison of working women and 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0: pp. 174~200.
- Yano, Christine R.(2006), "The Chrysanthemum and the Song: Music, Memory, and Identity in the South American Japanese Diaspora",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65 Issue 1,
- Yim, Y-C. (2006). A Study of Language Identity in Immigrant Communities.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14(1), pp. 69~84.
- Yim, Y-C. (2000).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and Intergenerational Conflicts in Korean Immigrant Families. *Studies of Korean Abroad*, 9(1), pp. 5~44.
- Yoon, I-J. (1997). *On my own: Korean business and race relations in Americ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http://www.census.gov>

<http://www.yellowpages.com>

<http://infousa.com>

- ❖ 투고일 : 2009. 1. 15
- ❖ 심사일 : 2009. 2. 6
- ❖ 심사완료일 : 2009. 2. 10

부록 1: 주택 가격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1)

† : p<0.10, \* : p<0.05, \*\* : p<0.01, \*\*\* : p<0.001

종속 변수 : home_value (주택 가격, \$/house)						
모델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citydummy (1=Los Altos, 0=Cupertino)	231080 (-18555)	227917 (-18507)	234366 (-18653)	231514 (-18589)	234921 (-18693)	232248 (-18624)
income (\$/year)	1.363 (-0.085)	1.402 (-0.086)	1.333 (-0.087)	1.370 (-0.088)	1.331 (-0.087)	1.368 (-0.088)
name_american (1=American name, 0= Ethnic name)	6489 (-17516)	8428 (-17454)	11773 (-17810)	14519 (-17750)	1825 (-26705)	687.5 (-26580)
genderdummy (1=female, 0=male)		61030 (-20586)		63689 (-20611)		64602 (-20658)
Japanese (1=Japanese, 0=Korean)			-29133 (-18220)	-33112 (-18181)	-38622 (-26311)	-46400 (-26303)
Jpn_name_american					17851 (-35694)	24890 (-35596)
Constant	532577 (-22357)	509570 (-23576)	551693 (-25336)	530294 (-26152)	556291 (-26962)	536399 (-27577)
Observations	920	920	920	920	920	920
R-squared	0.39	0.4	0.39	0.4	0.39	0.4

부록 2: 주택 가격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2)

† : p<0.10, \* : p<0.05, \*\* : p<0.01, \*\*\* : p<0.001

종속 변수 : home_value (주택 가격, \$/house)						
모델 변수	모델 (7)	모델 (8)	모델 (9)	모델 (10)	모델 (11)	모델 (12)
census_tr_507702	77114 (-49441)	72098 (-49268)	75901 (-49358)	70505 (-49163)	74818 (-49394)	69048 (-49193)
census_tr_507703	33067 (-51749)	31547 (-51540)	34420 (-51663)	32957 (-51428)	34179 (-51678)	32628 (-51434)
census_tr_507805	-149190 (-68430)	-158717 (-68228)	-155591 (-68383)	-166249 (-68158)	-155034 (-68406)	-165740 (-68167)
census_tr_507806	-50196 (-60446)	-54430 (-60216)	-56482 (-60420)	-61562 (-60165)	-55516 (-60451)	-60441 (-60183)
census_tr_507807	-66011 (-65047)	-67888 (-64783)	-71706 (-64994)	-74248 (-64700)	-71295 (-65014)	-73777 (-64709)

census_tr_507808	-63036 (-53227)	-66405 (-53021)	-66209 (-53157)	-70068 (-52928)	-67718 (-53212)	-72031 (-52977)
census_tr_508001	-106289 (-51561)	-113920 (-51417)	-107432 (-51474)	-115571 (-51307)	-107855 (-51491)	-116247 (-51317)
census_tr_508002	-85871 (-53935)	-87131 (-53715)	-97748 (-54157)	-100258 (-53914)	-99344 (-54216)	-102307 (-53966)
census_tr_508101	-176190 (-53568)	-185421 (-53443)	-174384 (-53482)	-183911 (-53327)	-174898 (-53501)	-184727 (-53340)
census_tr_508304	-288651 (-150925)	-279880 (-150336)	-288030 (-150662)	-278745 (-150000)	-293134 (-150867)	-284985 (-150171)
census_tr_509901	80667 (-132453)	73336 (-131934)	85293 (-132242)	78046 (-131655)	86686 (-132291)	79664 (-131680)
census_tr_510001	214961 (-52500)	206622 (-52364)	215423 (-52409)	206700 (-52247)	215256 (-52424)	206335 (-52253)
census_tr_510002	120393 (-61383)	118624 (-61134)	123316 (-61292)	121747 (-61013)	123551 (-61310)	122015 (-61019)
census_tr_510100	238467 (-62647)	228688 (-62481)	242231 (-62566)	232322 (-62363)	244149 (-62638)	234552 (-62416)
census_tr_510200	203014 (-56962)	194796 (-56799)	206797 (-56893)	198532 (-56696)	206787 (-56908)	198372 (-56702)
census_tr_510300	123154 (-60953)	123101 (-60703)	124563 (-60850)	124648 (-60571)	123686 (-60879)	123548 (-60588)
census_tr_510400	179214 (-66596)	167783 (-66440)	180079 (-66482)	168145 (-66292)	180326 (-66500)	168241 (-66298)
census_tr_510500	241947 (-60893)	239656 (-60648)	243271 (-60790)	240993 (-60515)	243784 (-60810)	241597 (-60524)
census_tr_511701	346921 (-62296)	338568 (-62107)	349999 (-62206)	341523 (-61982)	350271 (-62223)	341712 (-61988)
census_tr_511702	299346 (-67456)	282957 (-67417)	296259 (-67356)	278716 (-67292)	298102 (-67422)	280715 (-67334)
census_tr_511703	210816 (-54790)	195123 (-54833)	214455 (-54723)	198316 (-54728)	213654 (-54749)	197020 (-54752)
income (\$/house)	1.182 (-0.085)	1.221 (-0.086)	1.140 (-0.087)	1.178 (-0.088)	1.138 (-0.087)	1.176 (-0.088)
name_american (1=American name, 0=Ethnic name)	4231 (-17041)	6324 (-16986)	10345 (-17275)	13155 (-17220)	-3577 (-25853)	-4271 (-25730)
genderdummy (1=female, 0=male)		57913 (-19980)		60900 (-19979)		61992 (-20017)
Japanese (1=Japanese, 0=Korean)			-36058 (-17738)	-39656 (-17696)	-49315 (-25497)	-56363 (-25478)

Jpn_name_american (1=Japanese name American, 0=the others)					24901 (-34396)	31261 (-34293)
Constant	608982 (-46935)	591145 (-47146)	636319 (-48745)	620289 (-48805)	643371 (-49721)	628854 (-49706)
Observations	920	920	920	920	920	920
R-squared	0.46	0.46	0.46	0.46	0.46	0.46